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2년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정책 방향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kucho@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2021년 중국경제 평가
2. 2022년 경제정책 기조 및 부문별 정책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중국공산당은 2021년 12월 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2021년 경제성 과를 언급함과 더불어 중국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라는 3 중 압력에 직면했다고 평가함.

 - 전 세계적인 COVID-19 확산, 산업망 및 공급망 리스크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중국 내부의 단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며 새로운 경기 하방 압력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함.
 - (수요 위축) 국내·외 투자수요 감소, 국내 소비 감소가 수요 위축의 주요 원인임.
 - (공급 충격)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측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 등 국내·외 공급 충격이 지속되고 있음.
 - (기대심리 약화) 중국경제의 신창타이(New Normal) 진입에 따른 중속 성장으로의 전환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심리가 약화됨.

- ▣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되 동시에 성장을 도모한다(稳字当头、稳中求进)' 는 경제정책 기조와 더불어 각 부문별 안정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책임 및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함.

 - 거시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6대 안정(六稳)'과 '6대 보장(六保)' 정책을 통해 민생 개선, 사회 전반의 안정 유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온건하고 효과적인 거시정책 ▲시장 주체의 활력을 유도하기 위한 미시정책 ▲원활한 국민경제 순환을 위한 구조정책 ▲전략적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혁개방정책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정책 ▲총괄적인 민생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등 7개 부문별 정책 방향을 제시함.

- ▣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2년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다수의 중국 내 전문가들은 2022년 중국경제가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반면에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 확산, 업종별 경기 회복 수준의 격차와 이에 따른 소비 회복 부진 등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또한 존재함.

1. 2021년 중국경제 평가

■ 중국공산당은 2021년 12월 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2021년을 공산당 창당 백주년이라는 첫 번째 백년의 목표 달성과 14차 5개년 계획의 순조로운 출발을 실현한 해로 평가함.

- 선도적인 경제발전 및 COVID-19의 예방·통제,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빠른 성장, 산업망 및 공급망의 강화, 적극적인 개혁개방 추진, 효율적 민생 보장, 지속적인 생태문명 건설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함.
- 2021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액(GDP)은 114.4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8.1% 성장해 목표 성장률로 제시한 6%를 초과했으며, 최근 2년간 평균 성장률은 5.1%를 기록함.
-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0.9% 상승하여 2020년에 비해 1.6%p 상승했으며, 그중 식료품 가격은 2020년 10.6% 상승한데 반해 2021년에는 1.4% 하락함.
- 도시지역 실업률은 5.1%로 전년에 비해 0.5%p 감소했으며, 16~24세 청년실업률은 14.3%로 전년에 비해 0.1%p 상승, 2019년에 비해 2.4%p 상승하여 구조적 실업문제가 여전히 존재

■ 또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중국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악화'라는 3중(重) 압력에 직면했다고 평가하여 중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적시함

- 복잡한 국제정세, 전 세계적인 COVID-19의 확산, 산업망 및 공급망 리스크의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중국 내 단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경기 하방 압력이 나타남.
- [수요 위축] 국내·외 투자수요 감소, 국내 소비 감소 등의 요인이 수요 위축 압력을 야기함.
 - COVID-19로 인한 공급체계의 불안정함의 지속, 생태환경 보호 제약·자원 제약·에너지 제약·노동시장 제약 등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과 생산비용의 증가에 따른 중국 국내·외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있음.
 - 2021년 소비재 소매판매액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1 참고).
- [공급 충격] 국내·외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측 구조개혁의 지속 추진 등 국내·외 공급충격 요인이 존재함.
 - 미·중 무역갈등, COVID-19 등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 리스크 확대로 전 세계 공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PPI)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함(그림 2 참고).
 - 지난 몇 년간 과잉생산으로 인한 원자재·석탄·전기 등 전통적 에너지 공급의 구조적 부족 및 일부 지역정부의 저탄소 환경보호 지표 달성을 위한 의도적 전력 차단이 내부 공급충격의 주요 문제로 제기됨.
- [기대심리 악화] 중국경제가 신창타이(New Normal)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고속 성장단계에서 벗어나 중속 성장단계로 전환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

가 악화됨.

- 2000년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10년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13.8%였던 반면에 2011~2019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7.8%로, 직전 10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음
- 2021년 또한 약 8.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2020~2021년의 2년간 평균 성장률은 5.1%에 그쳐 중국의 경제성장이 본격적인 중속 성장단계에 진입했다는 전망임.

그림 1. 중국의 소비자 소매판매액의 규모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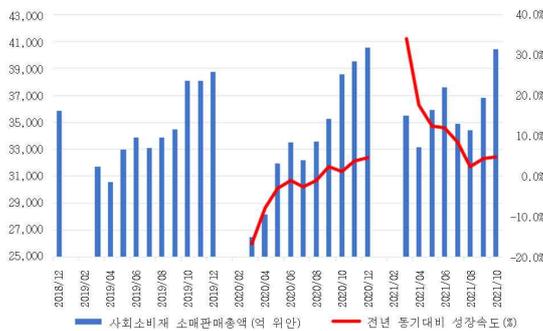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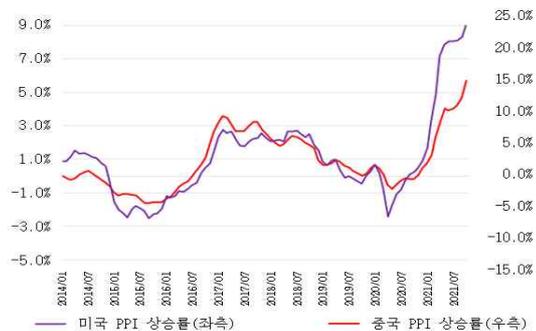


그림 2. 미국 및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PPI) 상승률 추이



자료: 『凤凰网』(2021), 『中央经济工作会议, 三重压力与红绿灯』.

■ 최종소비지출의 증가가 전반적인 경제회복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적 작용을 하였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소비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필수소비재에 대한 소비 비중과 온라인 소매판매액 비중이 현저히 증가함.

- 2021년 최종 소비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성장을 5.3%p 견인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65.4%를 기록해 2017~2019년 3년 평균 59.5%를 상회함.
- 2021년 1인당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12.6% 증가해 국내총생산의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나, 최근 2년간 소비지출의 평균 성장률은 4.0%에 머물러 국내총생산의 최근 2년간 평균 성장률(5.1%)보다 낮게 나타남
- COVID-19의 영향으로 2021년 분기별 1인당 소비지출의 2년간 평균 증가율의 변동성은 2017~2019년에 비해 44.7% 증가함.
- 8대 주요 소비품목 중 식료품, 주류, 담배 및 의복에 대한 소비지출만 최근 2년간 실질 소비지출 평균 증가율이 2017~2019년의 평균을 상회함(그림 3 참고).
- 2021년 가계소비지출에서 식료품, 주류, 의복 등 필수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7%로 2019년보다 1.2%p 증가함.
- 2021년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대비 14.1%, 최근 2년간 평균 12.5% 증가했으며, 그중 실물

상품 온라인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12.0%, 최근 2년간 평균 13.4% 증가하여 전체 소비재 소매 판매액의 최근 2년 평균 증가율보다 9.4%p 높았음.

그림 3. 최근 2년간 평균 소비지출 증가율 및 2017~2019년 평균 소비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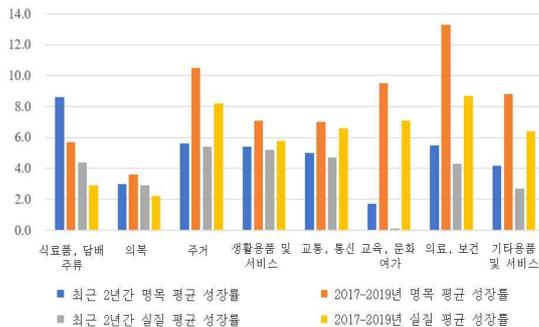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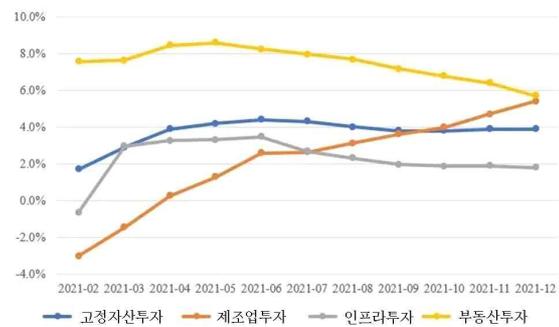


그림 4. 2021년 고정자산 누적투자 및 주요 3대 투자항목의 최근 2년간 평균 증가율



자료:中国社会科学院(2022), 「2021年中国经济回顾与2022年经济展望」.

■ 2021년 인프라 투자는 2~3%의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했고, 부동산 투자 증가율 또한 하반기에 들어 비교적 빠르게 하락하였으나 제조업 투자가 하반기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고정자산투자를 견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함(그림 4 참고).

- 2021년 고정자본 형성총액은 국내총생산 성장을 1.1%p 견인했으며, 국내총생산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13.7%로 전년대비 67.8%p 감소하였고, COVID-19 이전인 2017~2019년 평균보다 23.5%p 감소함.
- 2021년 전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대비 4.9% 증가했으며, 최근 2년간 평균 3.9% 증가함
 - 인프라 투자는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나, 최근 2년간 평균 1.8% 증가하여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7~2019년 평균 증가율인 6.7%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동산 투자는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최근 2년간 평균 5.7% 증가하여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최근 2년간 평균 증가율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7~2019년 평균 증가율(8.8%) 보다 낮게 나타남.
 - 제조업 투자는 수출과 이익 증가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3.5% 증가했으며, 최근 2년간 평균 5.4% 증가하여 2017~2019년 평균 증가속도인 5.8%에 근접하였음. 특히 2021년 초 이후 2년 평균 증가속도의 상승세가 유지되며 고정자산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함.

■ 2021년 공업부문은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뚜렷한 구조적 분화를 보임.

- 2021년 전국의 규모 이상(연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9.6%

상승하여 국내총생산에 비해 1.5%p 빠르게 증가했으며, 최근 2년간 평균 6.1% 증가하여 국내 총생산의 최근 2년간 평균보다 1%p 높았음.

-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9.8%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4%에 달해 전년대비 1.1%p 증가하면서 2011년 이후 10년 연속 제조업 비중이 하락한 이후 처음으로 상승하였음.
- 1~4분기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5%, 8.8%, 4.9%, 3.8% 증가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의 경우 각각 27.3%, 9.2%, 4.6%, 3.1% 증가함.
- 2021년 공업부문 생산설비 가동률은 2019년, 2020년보다 각각 0.9%p, 3.0%p 증가한 77.5%로 최근 몇 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함.
- 광업부문 생산설비 가동률은 76.2%로 전년대비 4.0%p 상승하였고, 제조업은 77.8%로 전년대비 2.9%p 상승하였으며, 전력·화력·가스·수력 생산·공급업은 75%로 전년대비 3.5%p 상승함.
- 주요 업종별로는 화학섬유, 석유가공, 범용장비, 전기기계 등의 업종에서 설비 가동률이 80% 이상을 기록함.
- 2021년 전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8.2%, 2년 평균 5.0%를 기록해 국내총생산의 성장속도와 비슷한 성장세를 기록함.
- 서비스업의 1~4분기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각각 15.6%, 8.3%, 5.4%, 4.6%, 최근 2년 평균 증가율은 9.34%, 10.2%, 9.8%, 11.5%를 기록했으며, 2017~2019년에 비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
- 업종별로는 COVID-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숙박 및 요식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 2년 평균 각각 -2.4%, 0.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금융업의 경우 2년 평균 각각 16.7%, 5.3%의 증가율을 기록해 COVID-19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조적 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2. 2022년 경제정책 기조 및 부문별 정책

가. 경제정책 기조

- 중국공산당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총 25번의 **穩(안정)**과 30번의 **進(발전)**을 언급하며, '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를 밝힘.
-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2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6대 안정(六穩)'과 '6대 보장(六保)' 업무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민생 개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 유지, 합리적인 경제운용, 사회 전반의 안정적인 유지를 요구함.
- '6대 안정'은 2018년 7월 31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고용, 금융, 대외무

- 역, 외국인투자, 국내투자, 성장에 대한 기대 등 6개 항목에서의 안정을 의미
- ‘6대 보장’은 2020년 4월 17일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고용, 기본민생, 시장주체, 식량 및 에너지 안전, 산업망 및 공급망의 안정, 기층조직 운영 등 6개 항목에서의 보장을 의미
 - ‘6대 안정’과 ‘6대 보장’은 현재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이 요구하는 마지노선을 구성
 - ‘稳中求进(온중구진: 안정적인 발전)’은 2012년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되어 현재까지 중국공산당의 핵심적 중앙계획과 경제업무, 더 나아가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성공을 위한 경제정책 총 기조임.

표 1. 역대 중국경제정책 총 기조(2012~2021년)

년도	주요 내용
2012	지속적인 ‘온중구진’의 총 기조를 관철해야함을 강조(2021년까지 지속)
2013	경제·사회 발전 각 분야 및 단계에서 개혁과 혁신을 일관되게 추진
2014	경제발전의 질적인 향상과 효율을 중심으로 신창타이에 주동적으로 적응
2015	안정적인 성장, 경제구조 조정, 민생, 리스크 방지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안정적 거시정책, 활력적 미시정책, 실질적 개혁정책 강조
2016	공급측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심화 강조
2017	‘온중구진’ 총 기조가 국정운영의 중요 원칙이며 장기적으로 견지해야함을 강조
2018	새로운 발전이념과 높은 수준의 발전을 견지해야함을 강조
2019	새로운 발전이념을 견지하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주축으로,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견지해야함을 강조
2020	‘온중구진’ 총 기조의 견지를 강조
2021	완전하고 정확한 새로운 발전이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의 가속화를 강조

자료: 『人民网』(2022), 『人民日报』(2022) : 『坚持稳中求进工作总基调』.

나. 부문별 정책 방향

- [거시정책]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의 지속적인 실시 ▲투자정책과 소비정책을 통한 내수확대 전략 실시 ▲경제발전에 있어서 도·농 및 주민 소비의 기초적 역할 확대 ▲공급구조 최적화를 위한 투자의 핵심적 역할 강화 ▲내생적 성장 동력 강화 등이 제시됨.
- 금융기관이 영세기업, 과학기술 혁신, 녹색성장 등 실물경제의 중점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중앙은행이 유도

- 2022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인민은행이 지방은행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액 대출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을 확대
- 신용대출을 농업지원 재대출관리에 포함시켜 소액 신용대출에 사용될 4,000억 위안 재대출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필요시엔 재대출 한도를 증액
- 비즈니스 시스템, 주민 편의 생활권 등 내수확대 전략 실시를 통한 내생적 성장동력 강화로 소비에 활력을 복돋고 소비 수준을 제고함.
- 현(县) 지역 종합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물류배송센터 등의 건설 및 개조를 추진, 지방도시의 상업망 개선과 농촌 전자상거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 실시
- 15분 주민편의 생활권¹⁾의 확대와 도시의 상업능력 향상, 조직적 소비 진작 활동을 통한 시장 기대 심리 및 소비심리 진작

■ [미시정책] 반독점 및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경영환경 최적화를 위한 개혁 추진 등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주체의 활력을 유도함.

- 건전한 시장 진입 허가, 공정 경쟁 및 데이터 경제 경쟁 감독, 경쟁을 방해하는 행정 권력의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구축의 가속화, 반독점 및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심화
- 시장주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과 건강한 발전 공간을 확대하는데 주력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 발전 구도의 구축을 가속화
- 경영환경 최적화를 위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심도있는 개혁을 추진함.
- 전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분야에서 더욱 상세하고 보완된 정책 실행

■ [구조개혁]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국내외 물류망 형성 촉진, 디지털 전환 촉진, 부동산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원활한 순환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기반 재건사업, ‘专精特新(전정특신) 기업²⁾의 대대적인 양성 등 국내 대순환 원활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

-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분배·유통·소비 각 단계에서의 원활한 흐름을 조성하고, 공급계약 요소를 타파하기 위한 전반적인 산업기반 재건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3,000개를 육성하는 등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기초공산품, 중요 생활물품, 농자재, 비료 등 중점 산업에서의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 확보
- 석유화학·철강 등 분야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기술 향상
- 기초전자소재 및 관련 핵심 소재, 핵심 소프트웨어, 핵심 기초부품, 기초제조공정 등 공급 병목과 단

1) 주민 서비스 반경이 도보로 15분 거리 내에 위치한 생활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1년 9월 2일부터 전국 30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

2) 2012년 4월 26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国务院关于进一步支持小型微型企业健康发展的意见(소형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의견)」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전문(专)·정밀(精)·특색(特)·혁신(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 질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화·공정화 사업을 추진함.
- 국내외 물류의 원활한 연계와 효율적이고 안전한 물류망 형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전통적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5G+산업인터넷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라인·작업장 등에서의 모범적인 활용을 심화시켜 모든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조성함.
 - 활용 가능한 잠재적 데이터 확보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 상호작용 등 기초적 공통표준의 연구를 추진하고 국가 산업인터넷 빅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함.
 - 기업의 데이터 기술 활용 능력의 향상, 스마트제조 서비스 네트워크의 건설, 산업인터넷 네트워크 플랫폼의 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를 추진하여 시스템 솔루션 공급업체를 육성함.
 - 부동산 장기 임대 시장의 활성화와 보장성 주택 건설 추진 등 각 도시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 정책의 유지,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메커니즘의 구축, 성(省)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의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 [과학기술정책] 국가실험실을 핵심으로 하고 전국 중점 실험실이 뒷받침하는 중국 특색의 국가실험실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혁신기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과학기술체계 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함.
- 과학기술체계 개혁 3년 행동방안³⁾ 실시, 기초연구 10년 기획 제정 및 실시를 제시함.
 - 당과 국가가 주도하여 핵심기술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 혁신적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진행 및 조직 관리방식 개혁, 체계적 경쟁역량 강화 등을 추진
 - 정부 주도의 중대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 지원을 확대함.
 - 기업의 혁신 주체로의 지위를 강화하고 산·학·연 연계 심화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의 최적화 및 견고한 과학연구 환경을 형성하며 국제적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과학기술, 산업, 금융의 선순환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전환 가속화를 추진함.
 -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활용, 평가, 서비스, 지원 등의 메커니즘을 보완하여 국가 전략적 인재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 [개혁개방정책] 자본시장의 전면적인 개혁개방, 종합적인 요소시장 재배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을 제시함.
-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 시행하여 상장기업의 질적 발전과 다차원적인 자본시장체계를 완비하고자 하며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양방향 개방, 국내외 시장의 상호연계 강화, 해외상장 신고제도 개
-
- 3) 2021년 11월 24일 「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22차 전면적 개혁심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통과된 것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체계에 남아있는 심층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이 제시됨. 구체적으로는 당과 국가의 주도하에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과학기술 역량 구조 최적화, 정부의 과학기술 관리능력 전환 추진, 연구기관·연구원의 권한 및 책임 강화 등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한 제도와 과학기술 혁신 체계화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혁, 국제 증권감독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 국유기업개혁 3년 행동방안⁴⁾의 완성과 전력망, 철도 등 자연독점산업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실시, 다국적기업 투자 유치, 높은 수준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 추진 등 높은 수준의 개방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을 개정하여 녹색 저탄소, 디지털 경제 등 신흥산업 분야와 중·서부 지역에 유리한 산업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투자 장려 범위를 확대함.
- 외국인투자법 및 실시 조례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실현하며,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경영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지역발전정책] 지역 중요발전전략 및 조화발전전략 등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동부·중부·서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

- 지역 간 경제발전의 격차 양상이 과거의 '동·서 격차'에서 '남·북 격차'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지역조화발전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균형적이며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각 권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2010년 중부 19.7%, 서부 18.63%, 동부 53.09%, 동북 8.58%에서 2020년 중부 21.95%, 서부 21.07%, 동부 51.93%, 동북 5.05%로 변화하여 중부 및 서부의 경제적(GRDP) 비중은 각각 2.25%p, 2.44%p 증가한 반면, 동부 및 동북은 그 비중이 각각 1.16%p와 3.52%p 감소함으로써 동·서 지역간 격차가 다소 개선됨.
- 반면, 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10년 42.81%에서 2020년 35.22%로 감소했으나 남부지역은 2010년 57.19%에서 2020년 64.78%로 증가하여 기존의 '동·서 격차'가 남강북약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냄.
- 전국적인 인프라 건설 및 공공 서비스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조화발전을 촉진함.
- 도·농 인프라 상호 연결, 농촌 공공서비스 분야 투자 확대, 농촌지역의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비용 절감 등을 통한 도·농 지역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균형 발전을 촉진함.
- 토지 도급경영 책임제의 보완, 특화산업 발전 등 농촌진흥을 통한 지역조화발전을 가속화함.
- 농촌지역의 빈곤극복 성과를 농촌진흥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토지 도급경영 책임제의 '3권분할'⁵⁾을 보완하고 새로운 농촌집체경제 발전 등 농촌 개혁을 심화하고자 함.
- 경작지를 철저히 보호하되 비교우위와 지역 특색을 갖춘 산업을 발전시켜 농촌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조성하고자 함.

4)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국유자본 국유기업의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 언급되었으며, 중국특생 현대기업제도 건설, 국유경제 분포 최적화 및 구조조정, 혼합소유제도 개혁의 심화, 건전한 시장화 경영제도, 자본에 의한 국유자산 관리감독 체제 형성 추진 등을 위한 행동방안이며, 2021년 말 중국국유기업 회사제 기본개혁은 중앙기업, 지방정부 국유기업 각각 99.7%, 99.9% 완료됨.

5) 2018년 12월 29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농촌집체경제조직과 도급농가의 합법적 권익의 보장과 농업의 현대화 발전을 위해 법제화된 제도로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분리를 의미함.

- 정부의 신용금융을 통한 인프라 건설 및 지역조화발전 촉진 자금 조달
 - 정부 신용금융의 선도적 작용을 통해 국가 및 지방의 중대 인프라건설 지원, 도농격차 축소, 도시화 추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

■ [사회정책] 기초노령연금, 출산, 고용 등 경제발전과 민생보장을 총괄적으로 추진

- 양로보험의 제도, 운용, 관리, 정보시스템의 전국적인 통일을 추진하여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전국 노령인구가 3억 명을 돌파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
 - 양로보험의 전국 통일은 각 지역의 심각한 기금 부담 불균형 문제 해결과 노령보험의 공평성과 기금 수용능력,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10.14억 명으로 가입률은 95%를 초과했으며, 연간 기금 규모는 4조 위안을 초과함.
- 2021년 7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대비한 3자녀 출산 정책의 시행과 그에 따른 지원 조치를 발표함.
 - 결혼부터 출산, 육아, 교육까지 정책적 지원을 통해 3자녀 출산정책을 최적화함.
 - 관습, 예물 등 부정적인 사회 풍토와 결혼 비용을 줄여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
 - 보편적인 탁아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 출산휴가·출산보험·육아수당 등 제도의 정비, 조세·주택 등 지원책의 강화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킴.
 - 공평한 교육과 양질의 교육 자원 공급을 추진하여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용 부담을 감소시킴.
-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 유연한 고용정책 등 고용우선정책의 강화를 통해 고용의 경제성장 견인력을 제고하고자 함.
 - 2021년 10월까지 전국 도시지역 취업자 수는 1,133만 명으로 COVID-19 이전 수준의 고용을 회복했지만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함.
 -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일자리 창출 주체들은 COVID-19의 영향으로 여전히 어려운 고용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새로운 감세정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3. 평가 및 전망

■ 중국 내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류위안춘(刘元春) 인민대학 부총장은 비록 현재 중국이 삼중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실업률, 안정적인 물가수준 및 거시 레버리지율(국내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 지속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면적인 인적자본 상승 등 중국의 성장잠재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어 2022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함.

- 평원성(彭文生) 증금공사(中金公司, CIC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경제가 일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정책적 측면에서 '안정적 성장(稳字当头, 稳中求进)'의 기초를 따를 준비가 되어있으며,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저후고(前低后高)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평가함.
- 선지광(沈建光) 징둥그룹(京东集团, J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러 하방 압력에도 2021년 8.1%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여 중국경제의 활력과 회복력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수출·외국인 투자·녹색 투자·하이테크 투자·디지털 경제 등이 중국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으로 중국경제가 질적·양적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평가함.
-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은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5~6%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업 부가가치 5%대 성장, 소비 5~6%대 성장, 고정자산투자 3~4%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 오미크론의 전 세계적 확산, 업종별 경기 회복 수준의 격차 등 2022년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여전히 다수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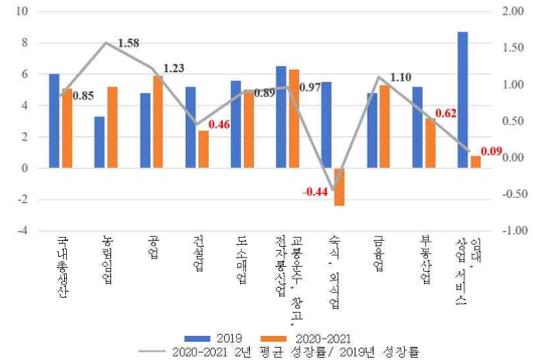
-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중국 내 유입 방지 및 지역 확산 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방역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어려움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2년 들어 중국내 중·고위험 지역 발생이 비교적 많아지고 있어 소비재 및 서비스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함(그림 5 참고).
 -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비재 소매판매액의 비중은 38.5%로, 소비재 소매판매액이 1%p 감소하면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0.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소비는 COVID-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음.
 - 만약 2022년에도 COVID-19의 영향이 존재하고 부동산 투자·제조업 투자·순수출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국내총생산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이 20%인 수준에서 소비가 1%p 감소하면 인프라 투자 증가율을 2~3%p 높여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업종별 경기 회복수준의 격차가 소득 계층별 소득증가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가계소득의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수 있어 전체 소비수준의 회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그림 6 참고).
 - 2020~2021년 농림어업, 공업, 금융업에서의 경기회복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 2년간 평균 성장률이 2019년 성장률을 상회함.
 - 택배업을 포함한 교통운수, 창고, 전자통신, 소매업은 2019년 성장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2년간 평균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임대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축업은 2년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 및 외식업의 성장률은 2019년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전국 지니계수는 0.468로 2015년 이래 가장 높고 2019년에 비해 0.003 높게 나타남.

- 2021년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가처분소득의 중위수 비율은 1.172로, 2019년의 1.159, 2020년의 1.169에 비해 높게 나타나 2021년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냄. **KIEP**

그림 5. 2022년 1월 전국 COVID-19 중위험 및 고위험 지역 수



그림 6. COVID-19 영향 이후 업종별 회복수준 및 2019년 성장률 비교



자료:中国社会科学院(2022), 「2021年中国经济回顾与2022年经济展望」.

[참고자료]

「2021年中国经济回顾与2022年经济展望」. 2022. 『中国社会科学院』(02.07).
 「中央经济工作会议、三重压力与红绿灯」. 2021. 『搜狐』(12.11).
 「聚焦中央经济工作会议 深度解读区域发展战略」. 2021. 『政信投资集团』(12.28).
 「社会政策要兜住兜牢民生底线」. 2021. 『成都日报』(12.11).
 「解读中央经济工作会议 社会政策要兜住兜牢民生底线」. 2021. 『中国银行保险报网』(12.16).
 「人民日报整版探讨：坚持稳中求进工作总基调」. 2022. 『人民网』(01.10).
 「稳字当头，稳中求进——学习贯彻中央经济工作会议精神」. 2021. 『中国经济周刊』(12.14).
 「张奥平：中央经济工作会议的六大看点」. 2021. 『财经网』(12.11).
 「两会前瞻 | 2022年：在“三重压力”下平稳健康发展」. 2022. 『中国经济时报』 (02.28).
 「收藏！2022宏观经济主基调」. 2022. 『搜狐』(01.13).
 「三重经济压力下，2022年中国经济走势如何？」. 2021. 『新华财经客户端』(12.31).

「刊首语 | 王力: 如何认识中国经济面临的“三重压力”」, 2022. 『银行家杂志』(02.11).
「三重压力, 稳字为先——中央经济工作会议解读」, 2021. 『第一财经』(12.13).
「中央经济工作会议举行 习近平李克强作重要讲话」, 2021. 『新华社』(12.10).
「以“三稳”框架应对“三重压力”——2022年宏观调控与结构性改革」, 2021. 『宣讲家网』(12.29).
「中央经济工作会议首提“三重压力” 如何应对?」, 2021. 『东方财富网』(12.11).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http://www.gov.cn/>).

자료 정리: 중국 북경대학교 경제학원 박사과정 한민석
(2001112179@stu.pku.edu.cn)